

이사장 입학지사

진리세계 탐구하는 창조적 지성인 되자 동국의 명예와 전통 이어가길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험난했던 입시의 관문을 넘어서 영예롭게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동국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 남산기슭에서 벅찬 대학생활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개교백년을 목전에 둔 민족의 명문대학입니다.

위대한 불교정신을 전하여냄으로써 미래의 창조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전통의 대학입니다.

흔히 대학을 지성의 산실이며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대학은 보다 나은 인류의 복지건설을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 지식의 전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실천적 의지와 상상력을 일구는 도장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재단으로서의 이 위대한 교육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이루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완공될 동국학술문화관, 이미 착공한 분당병원, 그리고 제3캠퍼스 부지 확보와 수도권에 불교병원건립등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재학하는 기간동안 이 동국도약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야흐로 우리는 국제화·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세계속에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우리의 모습들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실력 있는 동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드높은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고 어려운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는 창조적 지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앞에 결속하고 불의앞에 의연한 진정한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지성을의 조건을 말하며 이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 셋은 서로 조화를 이룰때 그 값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따

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감싸며 불공의 의지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참 용기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와 같은 기개를 키우는 모태가 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심판 풍국인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훌륭한 동국인이 되어 주실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점은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부모님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땀에 대한 보답은 바로 '성실한 인격으로의 성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국원 함장

총장 입학식사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기틀 다져야 전공에 따른 학술연마에 최선을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뜻 깊고 경사스러운 입학식장을 빛내주신 오국원이사장님과 원로대역스님, 재단이사님들, 황명수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난히 치열했던 입시경쟁의 관문을 뚫고 영예롭게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역경을 넘어 대학의 정취와 낭만속에 창조적 미래를 기약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동국대학교는 금년으로 개교 89주년을 맞는 전통의 민족대학입니다. 험난했던 일제시대의 난관과 6·25의 비극속에서도 굳건히 제 자리를 지켜온 찬연한 역사를 간직한 대학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10만동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은 동국의 명예를 잇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비롯한 중앙학일관, 한국학계통의 명문대학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초과학을 비롯해서 컴퓨터공학등 공학계열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첨단과학분야에서도 명실공히 정상에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만이 바람직한 인격을 이루듯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균형있는 발전만이 대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13대 총장으로서 "높은 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을 목표로 내세워 있는 동국발전의 다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동국학술문화관, 현재 건설중인 분당병원 뿐 아니라 제3캠퍼스건설, 수도권에 불교종합병원건립등을 기필코 이루어 낼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동국 1세기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동국대학교는 양적팽창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이루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신입생들의 학업성적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외국의 저명 대학 출신 교수님들이 속속 동국의 캠퍼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기류를 몇년간 지속시킨다면 동국대학교는 세계속의 대학으로 위상지위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동국은 여러분의 젊은 꿈을 문개구

를쳐줄 피워줄 지성의 산실입니다. 동시에 뜨거운 희망을 실현시켜 줄 감성의 보고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그리고 모든 동문들은 신입생 여러분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속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희망들이 앞날 결실을 맺게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동국구성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송석구 함장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민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새내기 미리 배움터를 다녀와서 대학문화 일러주고 조언하는 자리

출근 지루했던 그리고 계속된 가뭄때로 더욱 출근 느끼지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동국대 온방울에서는 불문대를 시작으로 새내기 미리 배움터 (이하 새터)를 가졌다.

난 문화공연팀으로 4개 단체 새터를 다녀왔는데 그땐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말들을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첫째로 대학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졌으면 한다.

여기저기 수동적인 제도 교육의 길들여짐에서 벗어나 사고능력을 키우고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대학은 자율적인 곳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러분들은 젊다. 젊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시간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다. 여러분들은 젊다. 무엇이든지 해 보아라. 술을 마시고 싶을땐 죽을 때까지 마셔보고 사랑도 죽도록 해보아라. 그리고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그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숙해지고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인생의 향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이전 재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대학의 음주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새터는 말 그대로 새내기들에게 대학이란게 무엇인지 대학문화가 또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자리이다.

절대로 새내기들에게 술을 가르치라고 새터를 하는것은 아니다. 새터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서먹서먹한 사이를 술자리를 통해 서로 얘기하며, 친교를 쌓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먹고 죽자- 음주문화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동국인이자.

어디에 가서든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짧은 글이나 몇가지 얘기를 두서 없이 늘어 놓았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새내기 여러분들과 술이라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끝으로 새내기 여러분들 대학 생활 열심히 해 나가길 바란다.

박재철 (자연대 생물학과)

그런데 학교측에서 내세우는 예산편성의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클원15% 인상, 경주캠17%를 인상했다.

학교측은 서울과 경주가 이제 동등한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일이지 않느냐는 식의 변명 아닌 변명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모든 예산편성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재단전입금의 실질적인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성회비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바꿀수 있지 않은 학생을 바꿀수 없듯이 동국2만 학생들은 영원한 동국인일수밖에 없다.

2만이 음직일때 동국은 변화할 수 있다.

이秉웅 (인문대 사회복지학과)

등록금 책정 문제 있다 국가보조금 증액 - 재단 전입금 줄여 예산편성과정 학생참여·기성회비 내역 공개해야

또 다시 등록금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다. 해마다 학기초만되면 등록금문제가 몸살을 앓아왔지만, 올해만큼 동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선 적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얼마안있었던 대학평가 인정제가 실시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실시된다면 결코 동국의 미래도 밝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졸업생이 전하는말 부족 아쉬워 등록금 협상 상황 설명 알권리 충족

지난 제1166호 동대신문은 박사·석사학위 취득자 명단과 신규 교수 프로필 특집기사와 등록금 인상기사, 총장선거기사, 새내기 새로배움터기사등 중요기사가 많이 실렸다.

그런데, 기사배치면에서 아쉬움이 눈에 띈다. 9면과 12면은 문화면인데 9면에는 퇴임교수 인터뷰 기사, 12면에는 수석졸업자 인터뷰가 실렸는데 내용도 문화면 기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제가 전도된 인상을 주고 있다. 퇴임교수 인터뷰와 수석졸업자 인터뷰를 따로 특집으로 하고 문화면은 문화기사로 특징을 살렸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한다.

김정식 (공과대 산업공학과·본시모니터)

그리고, 특집기사로 선배들이 재학생에게 전하는 일침의 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면의 수석졸업자 인터뷰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면의 등록금 고지서 발부기사는 고지서가 오지않아 의아해하던 학생들에게 발부가 면인데 9면에는 퇴임교수 인터뷰 기사, 12면에는 수석졸업자 인터뷰가 실렸는데 내용도 문화면 기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제가 전도된 인상을 주고 있다. 퇴임교수 인터뷰와 수석졸업자 인터뷰를 따로 특집으로 하고 문화면은 문화기사로 특징을 살렸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한다.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동대신문을 날카롭게 비판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3월9일까지 각 단과대학 1~2인씩 문의: 260-3491-2 (0561)770-2057

목 먹 골

축하드립니다

■지교과 '95친구들 정말 축하하구요. X2 정장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곧 느끼게 되리라 믿어요. 선배들이 잘해줄게.

-지교

■부천여고, 부천고 예쁜이들을 만나서 진짜 반갑구. 동문회때 봅시다.

-이쁜 선배들

■무역과 졸업생, 새내기에게 졸업하시는 선배형들 축하드리구요 입학하시는 새내기여러분들도 축하드려요. 우리모두 사회에서 대학에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요.

-항상 무역학과를 바라보는 사람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생활 잘 해 봅시다.

-정·외 선배일동

■난초의 향 그윽한 지리산지교의 꿈을 가진 성신여고 후배님들 입학 축하드려요. 열심히 생활하세요.

■95새내기 여러분 자랑스런 식공인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입학

축하드리고 즐거운 대학 생활하세요.

-식품공학과

■산공과 새내기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겁니다.

-산공과 귀신

■짧은새이웃 44대 회장단! 당선(?)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세요.

-192.女

■수교과 새내기를 환영합니다. 열심히 생활하세요.

-94학번이쁜 선배가

■윤리학과 새내기들 입학에 축하하고 잘 살아 봅시다.

-94학번 선배들이

■새내기들의 입학에 축하해요. 함께 생활 할 분은 오세요. 학생회관 5층

-K.U.S.A

■불교학과 95학번 새내기 환영합니다.

-93 이이수

■용만이형의 복학과 병철이의 재대를 축하해요.

-영수경민

■수고하셨습니다

■사학과 학우(새내기 포함)여러분. O.T준비하시느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롭게 마음다짐을

하시구요. 입학식날 봅시다.

-사학과

■M.T.다녀온 지교과 94와 95 수고 많았습니다. 또 파 새터하느라구요

-선배

■알립니다

■불교학생회에서 멋진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동·불교장

■이쁜 정의와 후배님들, 밥 많이 먹고 술조심하세요. 안주할 새우시구요.

-정의 94 F.S.일동

■95학번 이쁜 신입생들을 기다립니다. 학생회관 2층 동국서도회문을 두드려 주세요.

-동국서도회

■자기만의 시각으로 표현하십시오! 동대순수미술동아리 "그리고... 그림"회관 3층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만인의 심금을 울리나니 중앙 노래패 아리랑, '94 열심히 '95 빨리 들어와!!!

동/악/광/장

■새학년, 새기분 TIME으로 한번 와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el: 273-7030

-TIEM반

■그리고...

■Hitel동대 통신 동호회, 개강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내기들과 열심히 지내봅시다.

-BWW1009

■국문과 새내기들·복학생·편입생 형님들 그리고 재학생 잘 생활합시다.

■검도부! 멋진 한해로 다시 꾸며봅시다. Fighting

■D.U.C.A가 새단장 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내기 여러분. 통일원년, 사랑하며 삽시다.

-시와사랑의 한술밥 제37대 동국문화회

■순규야 군대 잘 갔다와라

-동준

온 방 골

축하합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의 불교를 아니 나아가 조국의 불교를 힘있게 이끌어 나갈 95학번 힘있는 범우를 찾습니다.

-불교학생회 16기

■불교학과 불교이동학과 국악과 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불은 오빠

■부산고, 경남여고 새내기들의 입학에 축하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꼭 봐요.

-부산고·경남여고 동문회 일동

■상경대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경대 선배가

■국문과 새내기들 입학 축하해요. '심봉'이라는 말에 어울리도록

눈을 뜨고 가슴을 크게 열어보세요.

-밀물결 회장

■경제학과 새내기들이. 진심으로 우리 선배들은 너희들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94선배

■법학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해용!!

-2학년 2학기 과대후보1번

■김천고·여고동문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문회 회박교박 참석하시길... 얼굴 빨리 보고싶다.

-동문회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의 불교를 아니 나아가 조국의 불교를 힘있게 이끌어 나갈 95학번 힘있는 범우를 찾습니다.

-불교학생회 16기

■불교학과 불교이동학과 국악과 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불은 오빠

■부산고, 경남여고 새내기들의 입학에 축하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꼭 봐요.

-부산고·경남여고 동문회 일동

■상경대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경대 선배가

■국문과 새내기들 입학 축하해요. '심봉'이라는 말에 어울리도록

이소! 학교는 재가 지키리라.

-尹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사람에게 늘 미안하다.

-누구가

■곧 맞이할 대(대)결원·승현 새내기들... 기대되시죠. 다같이 노력합시다.

-동문회장 백

■새내기들, 95년은 가 교과과 해인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를 이 선배들은 사랑해요.

-가교과 선배일동

■M.S 내가 널 항상 바라보고 있음을 넌 아니

-?

■방송국 정국원이 된 모든 수습국원들! 입모아 축하드립니다.

-연·형

■법(아)새.터 무사히 끝내길 기원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 미안하게 생각하며...

-Y

■찬주형!! 생일축하하구요. 앞으로 X.X와 좋은일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기원합니다.

-O

■희움의 절묘한 조화를 사랑하십니까 새내기여러분에게 처절한 희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음악회

'일본'무엇이 버티게 하는가

변화 베일속에 가려진 일본 실체

민족마다 각기 특유의 장점과 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일본은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보아서 어느 한 민족이 오랜 동안 터전을 잡아온 땅이 아니라, 남북계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유입한 부족으로 형성된 민족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문헌상으로 나타난 곳을 보면, 고구려계 민족들이 주축이 되어 고대 일본문화를 형성한 것 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요즘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매스컴을 타고 나와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거리의 화제로 등장하여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엔 한 신(阪神-오사카) 大阪 코베, 神戸에서 한글 자책 따운 탐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처참한 지경에서도 일본인의 그 차분함, 질서정연함을 본 세계인들은 이번엔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가 아니라, '일본은 이상하다'라는 유행어가 또 거리를 메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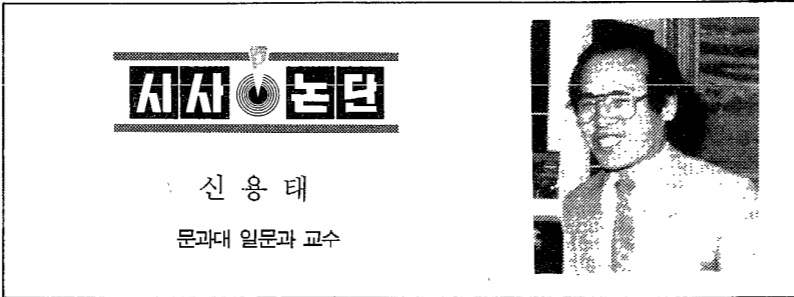
일본을 바로 아는 이에겐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마음인데도 '이상하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은 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확함'과 '질서'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마음가짐에서, '마음의 혼란'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겐 일종의 목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이다.

그러면서도 옛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마음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강함



신용태
문과대 일본과 교수

여기저기에서 엿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본이 세계를 향하는 첨단적인 움직임에서도 금방 이것을 감지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일본의 어떤 분야든지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것과 접촉시키려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데에서 쉽게 공감이 간다.

2차대전 종전 이전에 담임했던 아동의 붓글씨 작품(조금 잘 쓰긴 했지만)을 고이 간직하고는 30년이 지난 후교육자의 마음씨에서도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일본의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단면에서도 우리는 일본인이 얼마나 전통과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읽을 수 있다.

결론으로 보자면 가점집 같은, 'O'국수 제작법'이라는 간판을 단집이다. 할아버지는 회장, 아버지는 사장, 아들은 영업부장, 며느리는 경리부장, 사원은 고차 다식 사람 뿐이다.

이 중소기업의 벽면을 보면 잠깐 놀란다. 뉴욕지점, 파리지점, 런던지점, LA지점, 서울지점 등 세계 우수 대도시에 지점들이 박혀있다.

5차제 국수를 만들어온 이들의 이른바 노하우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술자도 당할 재간이 없다. 연간 매출액 수백억원, 이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국수맛을 세계인의 미각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조그마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할 때 어떤 혼란이 눈앞에 다가와도 금방 허둥지둥하거나 함부로 질서를 깰까나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흔히, 일본인을 보고 단절심이 강하다고 한다.

어기엔 그만한 역사성이 그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근세 조선조 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향약과 같은 자치 규약이 마을마다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약은 개인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 규약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소의 당하고 말기 때문에 단죄의 이말은 곧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일본인은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원이란 곧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석권하고 있는 이면에는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검약정신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30년간 교직을 역임한 대학교수의 주거 생활의 양상이 십년도 채 못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주거생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일본 어느 대기업, 어느 직장의 간부 가정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는 것이 외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시물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비야흐로 우리는 세계화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을 배타하는 자세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좋은 민족성이다 타민족의 장점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추어 세계를 향하는 것 만이 세계화의 지름길이라 생각이 든다.

허식을 배격하고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적 자세를 갖추는 민족만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미래를 열어지게 전망하는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를 통양문명이 서양문명을 앞지르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제 내 나라나 남의 나라니 하는 차별의식을 빨리 떨쳐버리고 남의 좋은 것을 재빨리 받아들여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사설

진정한 대학인이 되라

입학이란 언제나 가슴설레이는 일이다. 신선함과 새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그리고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크게 자리잡는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려는 새내기들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인 청춘의 시절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뜻깊은 날을 맞는 5천여 새내기들에게 우선 축하의 말부터 전하고 싶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입시에 매몰되어 대학입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한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는다. 새롭게 동국인이 된 새내기들에게 이러한 마음속에서 '동국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갖가지 부탁과 보고자 한다.

첫째, 진정한 대학인, 청춘의 삶에대한 진지한 고민을 부탁한다. 진정한 청춘의 삶은 언제나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그속에서 진리와 학문을 탐구하며 정의를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두번째로 동국인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동국은 구한말 민족의 선각자들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보려는 취지에서 설립한 민족의 대학이다.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우리의 자부심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기 위해 동국의 역사를 인식하자.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배워 나가자. 새로움은 무한한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주기 마련이다.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해 나간다는 신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자.

현재 동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대학시절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의 중심지인 대학에서 가장 순수한 변화의 주동자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내기들에게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새내기들은 삼아탑의 본질이 진리의 탐구와 쫓아낼 수 없는 정의의 구현에 있음을, 또 동국의 미래가 바로 자신의 삶속에 있음을 항상 염두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한다.

종량제 이후 1월 한달동안 수거된 재활용품은 41%늘었으며 종이, 유리병, 고철류등이 많이 수집되었다고 한다.

이로인해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이컵, 고철류 등의 보급인 학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종량제 이후 우리 학교내 분리수거 실패는 어떠한가? 한 마디로 전혀 안되고 있다.

본관 옆에 있는, 보기힘든 분리수거함 속에는 제대로 버려진 쓰레기 속에 낯선 쓰레기가 뒤엉켜있다.

지난 93년도에 학교당국과 학생측에서는 분리수거를 시도했다. 학교당국은 여러개의 분리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었지만 이 시도는 한화기도 이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졌다.

관계자측에서는 수거함을 설치해 주었지만 학생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다. 반면에 학생측은 설치장소도 제한적이었고,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 실패를 진단한다 관리미비-떠넘기기식 이제그만 학교·학생 적극적인의식 개혁 필요

시 큰 차에 그냥 부어넣어서 계속 시행되지 못했다고 서로 떠넘기기 식이다.

한편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주머니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직접 분리해서 처리하기 힘들며 학생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고충을 토한다.

경주캠퍼스의 분리수거는 기숙사와 병원을 제외한 전 교내를 대상으로 1년계약의 외부 용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대형업체로 넘겨져 처리되며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재활용사에서 수거해 간다.

그리고 학생회관, 도서관, 교수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의 경우는 비교적 처리방법이 없어 대형업

진 뒤 재분리 작업을 하게 된다. 관재과(과장=정창원) 근로장학생 1명에 의해 1차 분리가 끝나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 의해 2차 분리가 된다.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연중 무휴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청소구역과 면적에 따라 필요인력을 배분했다 하더라도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고 치우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사소한 학우들의 협조적인 정신이 질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학교당국은 1~2군데에 있는 쓰레기 분리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달리기 위한 레일이 하얏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제 선수(학생)들이 힘껏 뛰기만 하면 된다. 패류자나 쓰레기로 가득찬 곳이 아닌 재활용된 멋진 제품들이 진열장에 전시되길 기대해 본다. (사회부)

만평을 이어 받으며...

철 모르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맡으려니 지금은 두렵기만하다. 2만 동국인들에게 내 만평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왕 나에겐 책임이 돌아오만큼 열심히 해 볼 생각이야. 만화란 것을 내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요즘은,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런지도 모른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처음 펜을 잡으니 나의 미숙함을 느꼈다. 보이지 않았던 나의 숨겨진 면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의주시기로한 박원진(전기90학번)선배께 감사사를 드린다.

이영일
(경상대 무역학과)



단어를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해식 사전 동아프라임

영어단어, 절대 암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영어단어는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해식 사전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어원의 파생과정을 도표로 풀어 알기 쉽게 어휘의 응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전입니다.
이해식 사전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단어를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한 한 대 사 전	2432원	65,000원	855원	10,000원
한 한 중 사 전	1608원	40,000원	952원	9,500원
새 한 한 사 전	2432원	19,000원	782원	9,500원
새 국 어 사 전	2448원	21,000원	780원	9,500원
(국) 새 국 어 사 전	2834원	22,000원	976원	9,500원
(국) 새 국 어 사 전(반달책)	2864원	23,000원	804원	9,5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	2704원	19,000원	855원	13,5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반달책)	2704원	21,000원	976원	9,5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가죽)	2704원	21,000원	1350원	13,500원
(국)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	2716원	22,000원	1320원	13,500원
(국)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반달책)	2716원	23,000원	880원	12,0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	2136원	19,000원	1322원	13,500원
프 라이 엄 독 한 사 전	2256원	21,000원	976원	9,5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	2496원	19,000원	855원	5,000원
프 라이 엄 영 한 사 전	2304원	19,000원	816원	10,000원
현 대 영 한 사 전	1272원	10,000원	768원	9,000원
현 대 영 한 사 전	1240원	10,000원	1344원	9,500원
현 대 독 한 사 전	972원	10,000원	832원	9,500원
현 대 한 독 사 전	10,000원	2496원	20,000원	20,000원
현 대 불 한 사 전	1264원	10,000원	704원	45,000원
현 대 일 한 사 전	1058원	10,000원	1600원	15,000원
현 대 한 한 사 전	962원	10,000원	450원	45,000원

동아출판사
문의: (02)862-5439

케이블 T·V 개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신자 주권시대' 포문 열어

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소비자로의 파워 이동 국가 통신망 확충·다양한 서비스, 정보화 사회 핵심

케이블TV란 무엇인가?

1995년 3월1일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의 개국을 앞두고도 우리 주위에서 '케이블TV'와 'CATV'가 혼용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원래 CATV라고 하는 것은 Community Antenna Television의 약어로서 미국에서 유래된 용어이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동 안테나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단순히 공중과 방송을 재송신하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과 동일한 방송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단순 중계 방송에서 벗어나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CATV란 용어 대신 '케이블TV'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 한국의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에서 '종합'이란 기존의 중계유선방송과 차별하기 위해 불인 받로써 단순히 공중파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화된 채널을 제작하여 방송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TV는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각종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현상에 부합하며 공중파방송의 한계를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극복하고 많은 채널을 증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대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과 공중파방송과의 차이점으로서, 첫째 화면이 훨씬 깨끗하며 둘째 케이블을 통해 수십 개의 채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셋째 기존 공중파방송은 한 채널에 교양·

오락·영화·스포츠 등을 종합 편성하나, 케이블TV의 각 채널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맞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 비아호로 '수신자 주권시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케이블TV 운영

현재 우리 나라의 케이블TV운영은 프로그램공급업체 (Program Provider), 종합유선방송국운영업자 (System Operator), 전송망사업자 (Network Operator) 등의 3분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체의 경우 연합TV뉴스를 비롯해 26개업체가 있고, 종합유선방송국운영업자의 경우는 전국에 53개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송망사업자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등의 2개업체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모델로서 미국의 경우는 종합유선방송국운영업자와 전송망사업자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95년 3월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면 12개 분야, 21개 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중파방송 6개 채널(KBS-1, KBS-2, MBC, SBS, EBS, AFKN)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작년 말 새로 추가된 채널(홍소림, 만화, 비극, 문화예술)도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하면 16개분야의 27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케이블TV 준비 현황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되는 시험 방송에는 3월 본 방송에 참여할 21개의

프로그램공급업체 (신규 채널 제외) 모두가 시험 방송 중에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공급업체에서 종합유선방송국에 이르는 프로그램 분배망의 경우 한국통신이 매일경제TV 등 11개 프로그램공급업체의 방송 프로그램과 26개 종합유선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분배하는 전송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연합 TV뉴스 등 10개 프로그램공급업체와 18개의 종합유선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분배 중에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국에서 가입자 가정에 이르는 가입자 전송망은 95년 1월 18일 현재 약 10만 세대만이 부설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정이 가능한 세대는 약 2만 2천 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시험 방송 내용

보통, 테스트 패턴 송출과 프로그램 송출을 합하여 1개 프로그램공급업체 당 하루 평균 6.28시간(재방 포함)씩 시험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본 방송에는 약 35만 세대가 시청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블TV와 미래 사회

케이블TV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미디어로서 방송기능 외에도 통신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뉴미디어라 일컬어지고 있다. 즉 케이블TV에 이용되는 전송망은 미래 국가간망사업인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의 초석이란 점에서 케이블TV는 정보화 사회의 중추 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의 서비스는 원격 검침·방재·방재기능은 물론 홍소림·홍명랑·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나

라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용화하기 어렵지만 2015년이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로서는 케이블TV의 전송망이 '동축케이블'로 구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케이블'로 대체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연선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VDT (VOD) 서비스(원격지에서 저장된 프로그램을 케이블과 같은 양방향 전송망을 통해 가입자의 집에 신호에 의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집단 서비스)라 할 수 있다. VDT (VOD)의 적용 범위는 오락들의 경우 영화, 비디오 게임, 노래방 등이 가능하고 정보물의 경우는 전자 도서관, 전자 번호 안내, 정보검색, 요리 및 관광 안내, 다음으로 원격 행위로 는 홈쇼핑, 홈강강, 방방·방재, 원격 진료 및 교육 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소비자 주문형 (On Demand) 서비스로 인해 과거 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정보 소비자 중심으로 'Power'가 옮겨지는 일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TV에 의한 국가정보통신망의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는 완전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러한 국내 통신망 구축의 완성을 통해 범아시아권을 향한 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로 확대 발전시켜려는 것이 정부의 2천년대를 향한 정보화 사회 건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병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책연구실)

학회단신

3.1절 기념 켈기대회

일제침산 조국통일을 위한 시민대회 및 서훈연 반외세 자주화 투쟁선포식이 오늘(1일) 1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제27대 총학생회 (회장=안진우·국교4)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하고 민족정기 되살리자', '국민을 기만하는 지자체 선거 연기요' 김영삼은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사전 출정식은 오전 11시 학생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민족 토론회 개최

자주평화통일 민족민주회의는 해방 50주년을 맞는 3.1절의 특별한 의미를 되살려 민족토론회를 지난 27일개최했다. 분단극복 일제잔재 청산 그리고 민족정통성 확립을 위한 선언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열렸다. '분단 50년을 맞는 민족자주운동의 좌표와 진로',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 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의 소주제를 주제로 김병우 소장, 김원용 의원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신랄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부)

동약로 취임식 광경



"외외로 학생이 많이 왔군" "여학생은 안 보이네" "학군단 같은데" "정말" "박수부대라고 하기에" "문민정부"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후 다방관에서 열린 축하연은 좁은 자리를 무색하게 하듯 교수, 직원 및 각계 인사들로 성황을 이뤘다.

보고 제13대 신입총장의 취임식은 참석자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작됐다. 지난 27일, 제13대 총장 취임 및 제12대 총장 이임식은 교기를 든 학군단의 등진한(?) 인도를 받으며 민병천 전 총장과 송석구 신입 총장이 등장되어 뒤편에서 활기를 띄웠다.

신입 총장의 취임식 시간이 길어질 만만 못하고 난으로 꾸며진 단상엔 재단 이사들을 비롯해, 총동맹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등 대의 손님들과 일반 화석인 교수, 직원, 교수들이 쉽게 보였고, 파란색과 까무잡잡한 피부색 가진 스님들이 눈길을 끌었다. 줄을 지어 앉은 50여명의 젊은 머리의 학생들 또한 시선을 모았다.

(관주명 기자)

1995년도 징병검사 실시시공고

1995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징병검사 대상자
 - 76년 1월 1일부터 7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19세 대학재학생 포함)
 - 75년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 개인별 징병검사일시 및 장소는 읍·면·동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장정신상진술서"는 부·모든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병역처분 기준
 - 학력별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되는 기준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고졸		현역			보충역	제2	재검사
고외					국민역		대상
중졸							

 - ※ '94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임명대상자로 결정된 사람(4급자 포함)은 금년도 병역처분 기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현역병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3. 학력과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 전사, 순직 또는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제중 1인
 - 중학중퇴이하자, 2년 이상 수행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4. 징병검사 연기등 출원안내
 - 징병검사 연기
 - 질병, 천천, 구속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시·구·읍·면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 상근예비역 복무지원
 - 현역병으로 임명하여 1년간 현역복무를 마친후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1년 4개월 간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상근예비역 복부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9세 입영시험
 -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임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군의 소요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임명연
 - 징병검사를 받은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 연령(전문대학: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학적을 보유한 재·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하여 드립니다.
5.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처벌
 - 징병검사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정도 등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컴퓨터에 의거 처리되는 것이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작용에 의하여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간혹 의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등 수직성질환과 수형, 저학력등 신분상 사유로 면제되거나 불합격된 사람이 마치 청탁이나 정실에 의하여 면제된 양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해없이 바라보고, 만약 어떤 작용에 의하여 면제시킴은 있는 양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를 즉시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시·군·구별 검사일정(거주지 기준)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서울	관악구	2.13-3.10	부산	서구	8.29-9.11	대구	동구	7.3-7.5	충청	과천시	10.18-10.20	전라	진안군	8.17-8.19	경상	영주시	2.13-2.14		
	강남구	3.11-4.4		중구	9.12-9.14		북구	7.6-7.8		고령군	2.15-2.16		제주	서귀포시		6.8-6.10			
	강동구	4.6-5.13		동구	9.15-10.14		중구	7.11-7.21		영주시	8.21-8.23			충청		영주시	6.12-6.14		
	강서구	5.15-6.13		서구	3.14-3.20		북구	4.6-4.8		영주시	6.15-6.17					경상	영주시	6.15-6.17	
	강북구	6.14-7.5		동구	3.21-4.3		북구	4.10-4.19		영주시	6.19-6.20						경상	영주시	6.19-6.20
	동명동포구	7.6-7.27		서구	4.4-4.20		북구	4.20-5.1		영주시	6.21-6.24							경상	영주시
	양천구	7.28-8.23	동구	4.4-4.20	북구	5.2-5.10	영주시	6.25-6.28	경상	영주시	6.25-6.28								
	양천구	8.24-9.25	서구	4.21-5.2	북구	5.11-5.20	영주시	6.29-7.1		경상	영주시	6.29-7.1							
	양천구	9.26-10.19	동구	5.3-5.18	북구	5.22-5.24	영주시	7.2-7.3			경상	영주시	7.2-7.3						
	강서구	10.20-11.11	서구	5.19-6.10	북구	5.25-5.27	영주시	7.4-7.8				경상	영주시	7.4-7.8					
	영등포구	2.13-3.9	동구	6.12-6.30	북구	5.29-6.8	영주시	7.9-7.10					경상	영주시	7.9-7.10				
	서대문구	3.10-3.27	서구	9.4-9.7	북구	6.9-6.15	영주시	7.11-7.12						경상	영주시	7.11-7.12			
성북구	3.28-4.4	동구	9.11-10.2	북구	6.16-6.20	영주시	7.13-7.17	경상	영주시						7.13-7.17				
성북구	4.17-5.11	서구	10.4-10.26	북구	6.21-6.26	영주시	7.18-7.19		경상	영주시					7.18-7.19				
성북구	5.12-6.20	동구	10.27-11.4	북구	6.28-6.29	영주시	7.20-7.29			경상	영주시				7.20-7.29				
성북구	6.21-7.18	서구	11.6-11.17	북구	7.3-7.13	영주시	7.3-7.13				경상	영주시			7.3-7.13				
성북구	7.19-8.14	동구	11.18-11.21	북구	7.14-7.15	영주시	7.14-7.15					경상	영주시		7.14-7.15				
성북구	8.16-9.10	서구	7.11-7.20	북구	7.16-7.19	영주시	7.16-7.19						경상	영주시	7.16-7.19				
성북구	9.21-10.20	동구	7.21-7.27	북구	7.20-7.29	영주시	7.20-7.29	경상						영주시	7.20-7.29				
성북구	10.13-10.25	서구	8.11-9.4	북구	8.7-8.16	영주시	8.7-8.16		경상					영주시	8.7-8.16				
성북구	10.26-11.4	동구	9.7-9.30	북구	8.17-8.26	영주시	8.17-8.26			경상				영주시	8.17-8.26				
성북구	11.6-11.11	서구	6.20-7.4	북구	8.28-8.30	영주시	8.28-8.30				경상			영주시	8.28-8.30				
성북구	2.13-3.21	동구	7.5-7.21	북구	8.31-9.2	영주시	8.31-9.2					경상		영주시	8.31-9.2				
성북구	3.22-4.3	서구	7.22-7.29	북구	11.23-11.25	영주시	11.23-11.25						경상	영주시	11.23-11.25				
성북구	4.4-4.8	동구	8.7-8.9	북구	11.27-11.30	영주시	11.27-11.30	경상						영주시	11.27-11.30				
성북구	4.10-5.12	서구	8.10-8.29	북구	5.15-5.25	영주시	5.15-5.25		경상					영주시	5.15-5.25				
성북구	5.13-6.13	동구	9.7-9.30	북구	5.26-6.8	영주시	5.26-6.8			경상				영주시	5.26-6.8				
성북구	6.14-6.29	서구	2.13-2.16	북구	6.9-6.15	영주시	6.9-6.15				경상			영주시	6.9-6.15				
성북구	6.30-7.22	동구	2.17-2.22	북구	6.16-6.20	영주시	6.16-6.20					경상		영주시	6.16-6.20				
성북구	7.24-8.18	서구	2.23-2.25	북구	6.21-6.26	영주시	6.21-6.26						경상	영주시	6.21-6.26				
성북구	8.19-8.28	동구	2.27-3.4	북구	6.27-7.1	영주시	6.27-7.1	경상						영주시	6.27-7.1				
성북구		서구	3.6-3.13	북구	6.27-7.1	영주시	6.27-7.1		경상					영주시	6.27-7.1				
성북구		동구	3.14-3.20	북구	6.27-7.1	영주시	6.27-7.1			경상				영주시	6.27-7.1				

부산	영주시	6.8-6.10	충청	과천시	10.18-10.20	전라	진안군	8.17-8.19	경상	영주시	2.13-2.14	제주	서귀포시	6.8-6.10
부산	영주시	6.12-6.14	충청	과천시	10.21-10.23	전라	고령군	2.15-2.16	제주	서귀포시	6.12-6.14	충청	영주시	6.15-6.17
부산	영주시	6.19-6.20	충청	과천시	10.24-10.27	전라	영주시	8.21-8.23	충청	영주시	6.19-6.20	충청	영주시	6.21-6.24
부산	영주시	6.21-6.24	충청	과천시	10.28-10.31	전라	영주시	6.19-6.20	충청	영주시	6.21-6.24	충청	영주시	6.25-6.28
부산	영주시	6.29-7.1	충청	과천시	11.1-11.11	전라	영주시	6.29-7.1	충청	영주시	6.29-7.1	충청	영주시	7.2-7.3
부산	영주시	7.3-7.21	충청	과천시	5.15-5.20	전라	영주시	7.4-7.8	충청	영주시	7.2-7.3	충청	영주시	7.4-7.8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5.22-5.30	전라	영주시	7.9-7.10	충청	영주시	7.4-7.8	충청	영주시	7.9-7.10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5.31	전라	영주시	7.11-7.12	충청	영주시	7.9-7.10	충청	영주시	7.11-7.12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1-6.7	전라	영주시	7.13-7.17	충청	영주시	7.11-7.12	충청	영주시	7.13-7.17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8-6.14	전라	영주시	7.18-7.19	충청	영주시	7.13-7.17	충청	영주시	7.18-7.19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15-6.19	전라	영주시	7.20-7.29	충청	영주시	7.18-7.19	충청	영주시	7.20-7.29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20-6.21	전라	영주시	7.3-7.13	충청	영주시	7.20-7.29	충청	영주시	7.3-7.13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22-6.24	전라	영주시	7.14-7.15	충청	영주시	7.3-7.13	충청	영주시	7.14-7.15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6.26-6.30	전라	영주시	7.16-7.19	충청	영주시	7.14-7.15	충청	영주시	7.16-7.19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7.3-7.13	전라	영주시	7.20-7.29	충청	영주시	7.16-7.19	충청	영주시	7.20-7.29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7.14-7.15	전라	영주시	7.2-10.5	충청	영주시	7.20-7.29	충청	영주시	7.2-10.5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7.18-7.19	전라	영주시	10.6-10.14	충청	영주시	7.2-10.5	충청	영주시	10.6-10.14
부산	영주시	7.22-7.29	충청	과천시	7.20-7.29	전라	영주시	10.16-10.21	충청					

◆ 송석구 (철학) 신임총장에게 듣는다

‘더불어 사는 사람·높은 기상 갖춘 인간’양성에 주력할터

학과 통폐합 이성적으로 - 폐쇄적 학과 운영 공개·과이기주의 배제해야
제3캠퍼스 건립의지 불변 - 농장·교육용부지 확보 ... 건설부 허가만 남아

본교 제13대 총장에 송석구(철학)교수가 지난달 27일 취임했다. 재단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임된 송총장은 지난 1월15일 교수회 선거에서 2백35표, 직원노조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1백17표를 얻어 재단에 선임요청된 바 있다. 송석구 신임총장을 만나 동국발전 의지와 학내현안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 제13대 총장에 취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 모처럼 교수님들의 투표와 재단이사회의 만장일치는 동국사에 없었던 원만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동국대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라는 당부로 생각해서 열심히 대학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 공약사항중 학교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 1차적으로 대학발전이라는 것은 외적인 양적발전과 내적인 질적발전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이고 양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질적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동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일선에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3캠퍼스를 건립할 것입니다.

본교가 불교를 건국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교가 주장하는 ‘동체대비’, ‘불국정토구현’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하고 고통을 해결해주는 직접적인 것은 의료사업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국민적으로 관심을 둘수 있는 한-양방 매머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향상과 불교이념에 입각해 일선에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고 그를 통해 본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금은 모금 및 특별수익사업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특별수익사업으로 불교와 관계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적발전에서 교육의 시대에 걸 맞는 ‘질적관련성’입니다. 이미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학사행정은 학칙에 의해 엄격수행할 것이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할 수 없고 교수또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토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재정적기반을 확고하게 하기위해 총장이 할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든 외부로부터 재정자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적교육이란 것은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으로 컴퓨터와

어학을 들수 있습니다. 급변 신임생에게 이미 실시키로 했고 초반까지 연구해서 내년에는 컴퓨터와 어학교육에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효율적, 실용적으로, 사회의 재교육없이 적응도록 모든 교육내용을 개혁할 것입니다.

‘동체 대비’

‘불국정토구현’

관념이 아닌

실제적이어야 한다

또한 신학풍운등에서 지적했듯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섭게 실용교육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 높은 기상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행정체제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업무를 분석해서 책임과 권한이 함께 할수 있는 능률적이고 순발력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적·방어적 행정이 아니라 일을 찾고 창조하는 공격적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직원의 후생복지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 공약사항에서 거론된 제3캠퍼스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은

= 남산부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질적·양적발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4만여평 밖에 되지않은 부지에 그나마 ‘남산 재모습찾기’ 운동으로 인해 건물층 개축이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점 1만5천평의 교육공간으로 너무나 협소하므로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더 넓은 교육부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당면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고양시의 일선에 농장부지와 그 주변 15만평 교육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반 법적 조치를 끝냈고 마지막, 단계인 교육부와 건설부의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단과대가 이전할지는 구성원간의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3캠퍼스건립의지는 변함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상황을 공개할 것입니다.

- 가장 관건인 재원마련방안은

= 공약사항에도 1천억원 모금방법을 제

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것이며 나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만 발표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성숙하면 공개할 것입니다. 한가지 학생들도 모금원이 되어야 함을 당부합니다.

-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취임과 동시에 21세기 동국발전기획단내에 공약실천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연구검토해 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타후보의 공약또한 동대공약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하겠지요.

과통합

1차적 목적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선택이다

- 학과통폐합의 준비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와 계획은

= 대학평가가 인정제에서 학과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원칙은 통합입니다. 학생들이 수요자고 교수와 대학은 공급자입니다. 시대는 수요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통합의 1차적 목적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이제까지 학과의 폐쇄적 운영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학과이기주의를 없애자는 전체에서 과통합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학문영역의 근원이 같고 수혜자인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해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몇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졸업학점이 패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 생각을 버리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따를 것입니다. 여야적이고 무조건적인 통합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고받는 대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학기내로 커리큘럼을 손질할 것입니다.

- 그동안 평가면위협장이기도 했는데

해 실시예정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학내제주체들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을 11월에 평가를 하게되는데 통과가부여부만 남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학과통폐합문제와 더불어 커리큘럼을 자유선택토록 넓혀야 하는데 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 빨리 보완하도록 할 것이며 시설팀에서는 공간배치연구위원회에서 논의, 추진할 것입니다.

- ‘교육환경개선을 약속했는데 당장은 협소한 교육공간이 가장 큰 문제도 이의 해결 방안은

= 동국 내의 어느것하나 파듯한 면이 없습니다. 공간도 좁고, 출고, 여름엔 덥고, 뛰어다닐 공간도 없어 명랑한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이라도 일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급변내로 학생회관 내의 내부를 전면 보수하고 난방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교수회관 나이가 감의살까지 적은 돈을 들여서 편리하게 사용토록 재보수 하겠습니다.

한편 강의실의 환관·의자·교탁교체, 백상원근방정문, 학교주변정결히 해서 풍대에 들어오면 규모는 적지만 알뜰하고 짜임새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서관은 출입구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현재 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국학술문화관이 건립되면 자연히 공간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역시 불교학과 등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문제가 많았는데 제도적 보완과 학생참여에 대해

=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하면 지금하고 있는 교수채용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은 과단위의 자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수채용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 현재 등록금고지 알방발부로 더이상상의 협상은 어렵게 되었는에 이대대한 견해와 앞으로 등록금 책정방식은

= 협의라면 모르지만 등록금협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대학교육이 인성교육과 더불어 시장적 거래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도 충분히 경영적 입장에서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육 본질에 입각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학에서도 원가계산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등록금정책을 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학교가 모라하지 않는한 등록금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입니다.

국민수준이 대학기부금을 낼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때 등록금이 절감될 수 있



고 공약했던 재정 모금이 많아지면 책정도 적어질 것입니다.

경주캠

자치권 보장위한

연구 위원회

설치 운영 할터

- 경주캠퍼스 자치권확보 방안과 현재, 부총장선거시기에 관한 논란속에 김갑주교수를 유임하신데 대한 생각은

= 캠퍼스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독자 커리큘럼운영, 인사의 독자성, 재정권 위임확대등 모든 결재사항을 부총장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장선거를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경주캠의 상황을 잘 모르는 교수가 부총장으로 서울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로 임명하는 것이건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재단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재단전입금 확보 방안은

= 총장은 재단과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상호관계가 필요합니다.

21세기 동국발전기획단에서 재단이 가진 유효자산을 수익재산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과 협의해서 재단이 사업을 전개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동국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교육개방과 더불어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아 대학이 무한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경쟁시대에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은 참고 부득한 것이 있으면 총장이 항상 개방하고 있으므로 좋은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직원들 능력 발휘할 수 있고 신심필름 할수있는 분위기를 쇠신할 것이며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새로 태어난다는 입장에서 동국총중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기 보다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결정된 것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며 모든 동국인은 대동단결해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김소영 기자)

Advertisement for '영풍문고' (Yeongpungmunko)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ell and a row of books. Text includes '세계로 향하는 국내 최대의 서적 매장 - 영풍문고가 어둠을 깨우는 종(鍾)처럼 지성을 일깨우겠습니다.' and '전문서적 및 외국 서적 매장 확장 일서 매장 OPEN (2월 25일)'. A table lists staff members and their qualifications.

O·T의 이모저모



◇올바른 O·T의 방향

학교·학생 합의로 제도적 정착화 돼야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대학은 스스로 찾는 거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아셔야죠. 내용은 금물!”

“배움터인 만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는 속에서도 배울 점을 있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울 것을 쟁겨야 자신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말은 이번 서울캠퍼스 '95새내기 새로배움터 생활수칙이다. 대학 합격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쭈뼛쭈뼛 처음 본 선배 동기들과 어울린 것은 대학생활의 첫 경험으로 남아있다.

해가 갈수록 새터의 내용과 형식이 각 학교·단과대·과별로 다양해지고 있다. 학생회가 주도하거나 학교에서 단독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학교와 학생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기기를 맞을 준비를 하기도 한다.

'93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보다 신입생 예비학교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이다.

새터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93년 부터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선배들과 같이 느껴보고,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27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반준(생명자일과학사)군은 새터의 위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라는 명칭이 걸맞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90년 이전에 주로 학교측이 학교 소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입생 예비학교(Orientation)를 하루정도 진행하고 과 나름대로 신입생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와서

다가서는 새내기

봄의 새싹같이 신선하고 새롭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에서 본 신입생의 첫 인상이다.

신세대, X세대라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가보니 남을 위한 줄 알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고, 입시제도의 문제로 인한 참가합격이나 타학교에 이종으로 합격한 학생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금지가 부족한 것 같았다.

새터는 새내기에게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대학이 어떤 곳이고 '우리'라는 것과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것이다.

이번 새터에서 느낀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측의 무관심한 증과 증원으로 인해 신설학과 새내기들이 고충을 겪는 것이었다. 즉, 학생회설도 없고 교수들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대안없이 학생들만을 뺏아 놓은 것 등인데, 이것은 꼭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속에서도 새터에서 문제에 다가가는 새내기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구체적인 대안은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에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적인 임을 느꼈다.

김종민

(04강과목 무역3)

긴장완화의 자리

망설이다가 게 돼 버렸다.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멍하니 쳐다보는 창밖의 풍경조차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크리라고는

김인영

(문과대 사)

상상도 못했고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노래도 배우고 계속되는 소개로 선배와 동기들의 얼굴이 눈에 익을 때쯤 공연을 봤다. 지루한 감이 있던 했지만 그런대로 관중있고 다음 날에 본 중들도 볼만했다.

처음에 느꼈던 혼자라는 느낌을 떨칠수 있었던 것은 솔자리 덕이었다. 흥겨운 분위기 노래 대화 어디선가 사람을 알리면 솔자리를 같이 하라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대강 파악되자 기분이 훨씬 편했었고 불안감이 덜하니 새내기들이 서로 친해지고 학교나 과에 대한 애착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짠 게 분명한 프로그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내게 뭔가를 위한 대단한 것이었다기 보다 그저 긴장완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덕에 입학후엔 좀 편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이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김인영

(문과대 사)

함께 깨어나가야

긴 겨울의 터울을 지나 새기기를 맞이한다는 설렘이 있었다.

언제나 맞이하는 입학과 졸업,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보내면서도 유난히 분주하기도하고 무엇인가 모자란듯한 그런 기분으로 양산 다 탐험해보고 싶다.

약간 상큼한 모습으로 가방 하나씩을 메고 입소를 하는 모습에서 몇 년을 거슬러 나뉘는 새기기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회과는 최고! 가장 앞서가는 우리 회과!”라는 문구가 나뉘면서 온방울이 내뿜는 첫발을 기념으로라도 할 모양으로 회과의 특색이며, 선배의 얼굴 하나하나를 새겨 가는 듯 했다.

앞으로 집합 대학의 문화를 압축해 놓은 듯한 문화공연과 여색한 분위기를 융합해가는 장기자랑의

물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역동적으로 새기기의 개를 마음껏 발산하기도 하면서 처음 만남을 화기애애하게 풀어내었다.

그러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온방울의 고질적인 모순들을 함께 풀어내갈 우리는 하나라는, 그래서 함께 깨어나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지는 못한 것이 앞으로 새터가 안고 나가야할 일인듯하다.

최낙형

(심경대 관광경영2)

내 삶의 주체는 나

드디어 대학인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미리 배움터로의 발걸음을 몇일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친구들은 모두 서먹하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지만 다행스럽게도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을 덕분에 우리의 첫 만남은 무르익기 시작했다.

우리 새내기였기에 대학이란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무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완전히 배워야 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배님들은 대학의 자율과 책임감에도 지켜야 할 윤리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껏 부모님과 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졌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다.

탈패와 솔메리야, 동국음악학회의 동아리 공연도 열렸다.

특히 탈패에서 북소리가 아직 내 가슴에 여운을 남기듯 떠나간다.

지금의 나 자신이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언젠가 정신적 성숙함이 느껴지는 그날에 다시한번 새내기 미미 배움터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주은

(자연대 기교1)

달아나 천상에

인생의 사분의 삼을 향하여



신입생. 아마도 태어나서 네번째 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신입생이란 말을 듣는 것도 끝이 아니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 초년생이란 말을 듣게되고 신입생이란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니까.

대학이란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4년을 보내게 되는 곳이다. 모두들 대학에 입학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교교육을 받기 시작한 국민학교부터만 시작하더라도 12년을 오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인생의 목표를 대학입학에 둔 사명을처럼. 그러나 여기는 준비의 단계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중점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지금 신입생 여러분은 난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것도 저것도 내마음대로, 그리고 대학생활을 멋지게 지내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낭만도 즐기고 대학문화에 흠뻑 취해서, 그러나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다는 법이없다.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지세를 생각한다면 즐거움 기대만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다. 인생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가까운 70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시점에 와 있을 뿐인 것이다. 미래의 사분의 삼을 내가 나 스스로의 생활에 만족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지금의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시간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전문지식도 쌓으며, 내게 필요한 여러가지 산지식을 직접·간접 경험을 통하여 배우어야 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은 것들을 고집하며, 노는 것에도, 전문지식을 쌓는 것에도, 전심전력해야 한다.

요즈음 세계화라는 말이 흔하게 나온다. 과연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세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세계인이란 나 혼자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한마디 외국어만을 잘 한다고 해서 세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정말 세계인이 되는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것을 대학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년은 긴세월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볼 때는 무척이나 짧은 세월이다. 지금 인생의 나머지 사분의 삼을 향하여 막 출발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선 여러분은 4년후, 후회없는 대학생활이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혜은 사범대 지교과 교수

취재낙수

젊음의 열기

O...자연대 새내기들의 대비된 이틀간의 밤. 새로배움터의 첫재널밤, 한기의 밤. 새내기들은 연수원 주인공의 때 아닌 실수로 인해 병방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선배들 이모습을 바라보며 극기 훈련이 따로 필요없었다는 듯 새내기들을 쳐다보았다고.

진보의 문화

O...인문대의 문화공연은 소리와 몸짓의 어우러짐이었는데, 첫 태입을 끊은 '민중가요연합'의 무대있는 분위기 조율...말란 무리 것이라 전해들은 하회탈춤과 우리 다리 사물놀이의 신명을 보여준 '탈

격려의 박수

O...올해 첫 신입생을 맞겨온 사

회체육과 및 국악과, 국제관계과 등 의 신설과 새내기들의 단합과 신진함의 열기가 이번 배움터의 화제로 부각.

선배가 없다는 약점(때문인지)에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던 그들을 보는 다른 학우들의 안쓰러운 격정은 일시에 해소되어 버렸다.

특히 사회체육과 새내기들의 한관 어우러진 열기의 절정을 만들어 냈다.

확실한 이틀세대(?)의 개성과 자신감의 표현으로 어우러진 즉흥성은 그기에 시원한감각이 들기도.

O...올해 첫 신입생을 맞겨온 사

공동체의 중요성

O...올해 첫 신입생을 맞겨온 사

주체를 공동체를 표현하는 '우리'라고 함의 하나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한사람의 열정을 보았다. 열사람의 한결같은 더 필요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공연을 시작한 감당에는 공동체이후 파곤하여 조는 신입생들이 반을 이루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공개강의

일반과목: AFKN News, TOEIC종합, 아카데미 TOEFL, L/C, 영작문, Vocabulary, 영어실력기초, KH 사설, TIME, 한인회화반 (side by side), 일본어 (문법, 회화, 시험대비반), 중국어

특수과목: 외대통역대학입시반 (영어, 불어, 일어), TOEFL종합반, TOEIC종합반, 주부영어회화반, 일본유학반

일시: 일반과목·95. 3. 2(木), 08시, 12시, 6시 (3회)
특수과목: 95. 3. 2(木), PM 2시~4시 (1회)

장소: 을지로학원

신입생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 신문의 전통과 명예를 결코 최고를 약속합니다 —

외국어 교육 1번지!

YBM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어학원

세계화의 길잡이 — 35년 전통의 명문학원

The Korea Herald 학원·어학원 개강: 3월 3일

외대통역대학원 합격을 최고! 내외국인 유명강사 60명 열강!!

관공서, 기업체임직원 외국어 위탁교육 및 입사, 승진, 능력평가시험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일어 文法 講解 會話

- 英語會話 - 한국인반, 미국인반 (초급, 중급, 고급)
- 일반영어 - 영어실력기초, 영작문, VOCABULARY
- AFKN뉴스반, L/C(청취)반, 아카데미TOEFL, TOEIC종합
- 時事會話 - 코리아헤럴드 社說, TIME
- 日語文法·講解·會話 - 초급, 중급, 고급, 일본인 회화반
- 통역대학원 입시반 (영어, 일어, 불어)

특수반 운영

영어통역 가이드반/주부영어회화 교실
일본유학반/주말(토) 특수반/TOEFL, TOEIC종합 일본어시험 대비반

(을지로입구역 을지서적 위) **을지로학원** ☎ 757-0419 757-0420

(4호선명동역 30m 거리) **명동어학원** ☎ 727-0271/2 753-9155

영어·日語·中國語

- 아카데미 TOEFL
- 명작문 연구
- 시사영어사 종합 TOEFL
- 영어순화
- TOEFL 시험대비반
- 대학원·취업영어
- TOEFL L. C.
- 영어실력기초
- TOEIC
- 패턴인 영어강좌
- TOEIC L. C.
- 일본어 문법·독해
- AFKN 청취
- 일본어 기초회화
- TIME
- 일본인 일어회화
- VOCABULARY
- 중국어 문법·독해
- 한국어 영어회화
- 주일 특별 과정

ECC 영어 회화 과정

- 정원제 Level Test 실시
- 강사 Free Talking (Advanced) 까지 10단계
- 본 학원에서 개발한 교재

매월 1일 개강 - 수시 등록·수강
전화: 276-0509

과교다 공민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7월 9월 11월

행정고시

20년 전통의 전문강사진 직강
충실한 내용/새로운 체제/원만한 교재

개강 3월 2일 (현재상당 접수중)

방학특강, 고시 종합반 및 경제학 '최고수직강'

직위시험	인문고시	대학원	각종고사
공회계사	한문고시	교육학	지방고시
세무사	법고시	법학	고시특강
변리사	간접전문고사	TOEFL	
사무사	간접전문고사	+독해력	
공인자격시험	간접전문고사	미남수 교수	
	간접전문고사	선, 오권, 오후, 지영	

행정고시

7월 9월 11월

공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사무사, 공인자격시험

한문고시, 법고시, 간접전문고사

교육학, 법학, TOEFL +독해력

미남수 교수, 선, 오권, 오후, 지영

행정고시

20년 전통의 전문강사진 직강

충실한 내용/새로운 체제/원만한 교재

개강 3월 2일 (현재상당 접수중)

방학특강, 고시 종합반 및 경제학 '최고수직강'

공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사무사, 공인자격시험

한문고시, 법고시, 간접전문고사

교육학, 법학, TOEFL +독해력

미남수 교수, 선, 오권, 오후, 지영

군컴퓨터O·A병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 고졸이상 17~26세
- OA행정병 주특기부여
- 영장보안수련단독임명
- 6주훈련후 실근무대배
- 1월~12월 매월 임대

<접수중>
735-2323
9716

※ 유사학원주의 (구 유니타자학원)

관인성학원

종로기 재원은정본점

◇ 제13대 송석구 총장 취임사

‘높은 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 실현

“무소의뿔처럼 묵묵히 동국발전의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복원 이사장님, 송철주 총무위원장님, 재단 이사님들, 고승대대님여러분, 민병천 총장님, 황명수 총동창회장님, 이석희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내외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여러분! 오늘 본인이 동국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가호와 동국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의 덕택으로 알고 또한 감격과 영광에 앞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국가의 책임을 높이 들고 불국정토의 건설과 인간의 자아완성이라는 큰 이상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구한말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이룩한 학교가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이며 이러한 건학이념은 본교가 격동과 수난의 한곡원대시와 그 명암을 같이 해오면서 개교 90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유지 계승해온 자랑스런 동국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먼저 “높은 기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이라는 기본정신을 교육의 대 전제로 삼고자 합니다.

대학이란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자기 실현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화합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길이며 소의를 버리고 대승의 보리심을 찾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이며 상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자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끼고 사랑을 사함하며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심과 이타행을 스스로 실천하는 대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이며 화합의정신이며 원음의 세계입니다.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가는 곧 하나의 경쟁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대학도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에 있어서 변화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변화를 위기로 생각하는 소극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시혜자인 학교나 공금자인 교수가 주도하고 지시하는 교육관행에서 벗어나 수혜자이면서 수요자인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각하고 결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육환경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도 상품”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학의 수요자 중심으로 변모한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서의 본래와 원칙에서 이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 뿐입니다.

무엇이 공부하는 학생, 지독히 연구하는 교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대학만이 진정한 상아탑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면학분위기를 가일층 제고할은 물론 대학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내의 모든 활동과 행사에서 건학이념과 교육의 원칙이 존중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정보사회로 전환하면서 인건소외와 인간성 상실 등 많은 모순과 갈등구조를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대학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인문사회적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밑수룩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자주적 주체적 사고를 통하여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정보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술교육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시대의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은 물론 특히 기술교육의 종아인 ‘컴퓨터교육’과 세계화와 동의어인 ‘외국어교육’등을 적극 강화하여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도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종합적 인재를

학과 조정 난항

학교 “통합·조정 시안...어디까지나 가안일뿐”

학생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발

‘96학년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방침에 학과를 조정 중인 본교가 각 학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각 단과대 관련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문체계 및 학과조정연구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학과 통합·조정 시안을 마련했으나 사범대학과 예술대학 소속 학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 못해 관련 학과 교수,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과 조정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어디까지나 가안일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통계학과의 경우처럼 적합한 조정안도 있지만 사범대학의 경우는 매우 난처하다”며 좁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학과 및 이부대학 학생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학과 조정의 공개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교는 올해 ‘전산통계학과’으로 1백명을 모집했다.

(동국대학교 학과 통합·조정 시안(안))

대학명	통합·조정(안)	비고
법과대학	법과·인도법학과 신학과	법학과, 인도법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일문·일문학과 영어·독문학과 철학·윤리학과	일어일본학과(주), 중어중문학과(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이과대학	물리·반도체학과 화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주), 반도체학과(야) 통계학과(주), 전산통계학과(야) 전산학과(야)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과 사회·인문방송학과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회계학과 무역학과 광고학과 정보관리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주), 신문방송학과(야) 경찰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공과대학	정보·전통학과 사회·인문방송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전통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농과대학	식품·산업자원학과 생물자원학과 식량·지리교육(학)과	식품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사범대학	역사·지리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예술대학		미정

학칙 제정 및 학사내규 일부 개정

문화예술대학원 제정·복수전공 학위 동시 취득하도록

신설된 문화예술대학원의 학칙이 제정되고 학사내규가 일부 개정된다.

학사내규 개정안은 제4절 복수전공에 관한 항목으로 △제23조(목적) 복수전공은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수학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학과에서 제2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제1, 2전공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2도이다. △제25조(허가) 복수전공의 신청은 7학기 등록후 소정의 지원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8학기 등록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학점) ①복수전공자는 제2전공 소속 4학년(9학기 등록후)으로 적용한다. △제27조(졸업) ①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한다. (학위수여일치 동일함)의 내용이 변경되며 △제24조(자격) ①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사제된다. 또한 △제25조(허가) ③한

총여 설문조사 분석

새터기간 실시...남녀간 견해차이 심해

총여학생회(회장 김나영·교육4)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신입생 새터배우터 기간중에 실시한 앙케이트조사 분석에 들어갔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지 1백70부 가량이 수거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신입생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나 응답자의 단대별 편중이 심하여 올바른 표본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설문내용에 대한 남녀간

회전무대

인상만이 실길(?)

○...인상, 인상, 인상만이 실길이다.

시중 이발소의 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내 이발소 철재처럼 타지방 학생이 반 이상이나해 방문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할수 있는 기간은 5개월 뿐.

학생회관 식당의 식대 조정에 맞춰 이발비 상승을 피하고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야”하며 돌아서는 학우들의 발걸음은 (!)

○...돈의 쓰임에 대하여

하나, 졸업준비위원회는 1백주년사업본부에 3백만원의 기증했다.

둘, 불교신자인 이경숙여사는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본교에 전달했다.

셋, 졸업식날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모의원은 축하연을 위해 엠버서더호텔에 2천만원을 지출했다.

○...도서관 열람과의 특별열람증 발급은 졸업생을 위한 것(?)

본교 강사, 휴학생들의 도서관 출입, 도서열람을 위해 발급하는 특별열람증에 졸업생이 없다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2백여명이 발급받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취업률과 졸업생 특별열람증 발급률은 반비례지, 아마...?”

총학생회, 등록금 거부 투쟁

선전유인물 제작·우편물 발송 등 대중운동 계획



◇교내 학생들에게 ‘등록금 거부’에 대한 선전을 펼친 학생회 일꾼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총학생회(회장 안진우·국교4)는 학원자주화투쟁 교양학교를 지난 27일 동국관(M404)에서 가진후 교내 학생들에게 선전전을 가졌다.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이날 교양학교에서는 각 단과장동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15%인상의 부당성, 대항투쟁을 통해 본 학교의 근시안적인 학교발전 논리 등이 논의되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학원자주화투쟁 교양학교 평가, 3·1절에 있을 집회, 등록금 투쟁등을 논의했다.

등록금 투쟁에 관해 총학생회 “신입생을 위한 선전유인물 제작,

총대, 동우탑 제모습 찾기 운동

“동우탑 정신 학우들과 함께 공유해야”

제27대 총대의원회(의장은 박대용·법과4)는 ‘95년 특별사업으로 ‘동우탑 제모습찾기’와 ‘통일원년 대장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의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우탑이 풍물패들의 연습장소로 사용되는 등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며 “울타리, 표지판 등을 세우고 최소도 자주 해 동우탑의 정신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동우탑 제모습 찾기’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통일원년 대장정’에 대해 “타학교 총대의원회와 연합하는 대외사업이 될 것”이라며 “방학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문화대, 법과대, 생명자원과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대 대의원장 선거일정을 발표했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 공고=3월2일 △후보자등록 마감=3월6일 △선거공보=3월9일 △선거대대의원 총회=3월13일~17일.

졸준위 4학년 전체 과대표 총회

사업기조 조직체계 논의

제7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동화·경계4 이하 졸준위)는 ‘95년 도 4학년 전체 과대표 총회’를 지난 22일 동국관(M203)에서 열었다.

52명의 과대표중 21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졸준위에 대해 사업기조 및 조직체계, 올해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95년 상반기 주요 사업계획은 업체선정을 중점으로 하는 열병사업,

◇심층

의사국가고시 대거 탈락

국시원 출제 문제 오류 발견

지난 1월10일에 치러진 58회 의사 국가고시에서 본교는 47.5%의 합격율을 보였다. 그러나 본교를 비롯한 전국 35.8%의 탈락자를 저질 의사로 대도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4학년 대표자 협의회(수석대표=이삼범 경희대 본4 이하 전사회)에서는 지난 14일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드리는 글’을 펴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본교 4학년과 재학생 2천7백여명은 과천 제2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가고시 시험원(원장=이문호 이하 국시원)의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해 언론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에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자체가 자격 시험으로서의 객관성과 선별성 상실 △문제 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정답이 없거나 2개인 문항이 13개 되는 문제 제기와 국시원의 오류 스이빈 시험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낮추어 버린 평가와 해석 공평 보건의 일차진료의, 인턴의, 부속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인 문제 스이빈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전국민 등이다.

한편 국시원 관계자의 언론조작으로 의대생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적대시 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시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내과와 예방의학의 경우 일차진료의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60점 이상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최대한의 자격을 갖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만점 3백30점에 2백70점 이상 3명, 합격선 근처 2백20~1백85점 1천5백36명, 불합격한 2백~1백85점 5백70명

합격자 발표이후 국시원 당국자와 20여개 대학의 학장이 참석한 전국 의대학장회의가 지난달 7일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문제에 대한 질타, 조속한 추가시험 실시, 공정성과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시험문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전사회는 빠른 시일내에 2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도 평가 방법이 옳지 않으면 좋은 의사를 배출할 수 없고,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유기적 상호관계에 있는 교육과 평가, 그 우선 여부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지.

(英)

영화의 패러독스

'레옹' - 퓌 베크 감독

미국식 오락과 타협한 시적정서 흘러



프랑스 현대 감독 가운데 가장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퓌 베크(Luc Besson) 감독. 그의 최근작 '레옹'이 개봉되었다. 퓌 베크감독이 유난히 인기를 끄는 매력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랑부르' 니키타에 이어 이번 작품 '레옹'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엔 관객을 사로잡는 일관된 특성이 있다.

영화 속의 주제는 표면상 프로페셔널의 세계와 그 치열한 경쟁을 그린다. '그랑부르'에서의 다이빙 신기록 경쟁, '니키타' '레옹'에서는 전 문 킬러의 냉혹한 암투가 그것이다. 미국 오락시장에서 퓌 베크의 영화가 환영받는 이유도 표면상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헐리우드식 현실도피적 오락물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관객을 잡아끄는 요인 중 에 바로 그 긴박감, 서스펜스, 액션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영화의 구조 속에선 어쩌면 결맞지 않을 듯한 퓌 베크 특유의 예술 감각 고집. 그건 바로 퓌 베크의 탐미적인 영상이며. 그의 영화적 형식 속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시적 영상이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는 영화마다 시적 메타포를 설정하는데 '그랑부르'에서는 돌고래와 바다, '니키타'에서는 슈퍼마켓 점원과의 사랑, '레옹'에서는 킬러의 화초와 소녀와 사랑이다.

예를 든 시적 장치들은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기능적으로는 간략하게 서술되어도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감독은 무리할 정도로 길게 반복 설명한다. 종래의 헐리우드적인 재미에 몰입되어 있는 관객들에게 그러한 시적 우회하는 자칫 지루함을 면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독의 시적 설정은 곧 그의 주제로 직결되어 있다.

최근작 '레옹'을 보자. 이 영화에는 표면상 프랑수아즈적인 혹은 퓌 베크 속적인 측면을 엿볼만한 단서는 거의 없다. 시종일관 캐고 부수고 잔혹한 피투성이와 총알, 폭탄세례의 미국식 오락영화의 전형이다. 이러한 저질스런 한탕식 오락에서 그녀

마 이 영화를 구원하고 있는 것은 소녀의 심리를 묘사하는 영상적 컷트들과 킬러와의 우화적인 사랑의 에피소드 설정, 킬러가 항상 물을 주고 키우는 방언의 화초에 얽힌 이야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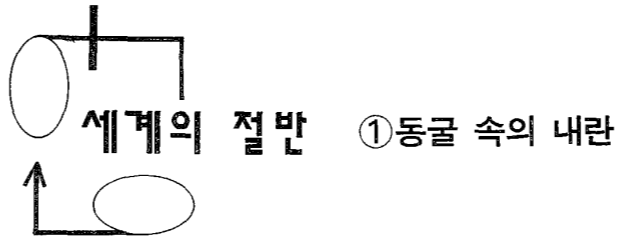
그렇다고 퓌 베크를 위대한 예술 감독이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 '노스탈지'나 '희생'을 만든 러시아의 타르코프스키 감독과 같은 위대한 영상시인은 따로 존재한다.

퓌 베크의 영화는 시적 정서가 흐르며 그건 어디까지나 상업오락적인, 특히 미국식 오락과 타협하고 있는 한도내에서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도도히 흐르는 미국, 홍콩식 오락물들을 우리 젊은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데 있다.

퓌 베크의 지점도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다. 과연 미국 스타리들을 어떻게 프랑수아즈적으로 품어줄까 요 리할 것인가?

정재형

(예술계 연연과 교수 영화평론가)



“과연 여성의 자기발전은 남성의 손에 달려있는가”

정확하게 오전 9시엔 전화를 걸어서는 거의 30분 가량 '그동안 쌓인 물분'을 토해내곤하는 친구가 어느날 "나 집 나왔어"하는 바람에 그날 아침 수업을 무려 30분이나 늦게 시작 한 적이 있다. 그녀의 쌓인 물분 중에서 그날 흘러 넘기게는 너무 비인간적이라 나 역시 덩달아 흥분하곤했던 목욕이 바로 '햇빛이 안드는 북녘 구석방'에 남편이 처박아 둔다는 것이었는데, 그날 그녀는 구석방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도 인식욕이 강했고 자유분방한 삶을 구가했으니 결혼과 더불어 마치 실험용 모크모트처럼 병약하고 무기력하게 변했던 그녀의 '동굴 속의 내란'과 '탈출'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의 여성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했다. 과연 여성의 자기 발전과 자아 확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결혼하는 상대 남자가 얼마나 관대하며 뒷받침 얼마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여성의 자아 확장의 범위가 결정된다. 여성의 의지나 욕구는 얼마나 시한부적인가? 제한적인가? 남성이 해계모니를 쥐고있는 사회가 얼마만큼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기주장을 받아들인 것인가?

그녀의 경험은 비단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성의 여성 억압 구조를 보여주는 한 모형을 지나지 않는다. 매우 흥미롭게도 그녀의 경우는 경제적,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면에 이르기까지 남성이든 그렇지 않은간에 얼마나 여성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뛰어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한 후 얼마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경제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를 대신 키울 사람도 없었고 그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연구하고 반박하고 발전해 온 이론, 그러나 이 이론의 실천만큼은, 우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가능한 페미니즘. 대학인이 아직 하지 못한, 남학생이라면 하지 못할 여성적 체험과 그 의미가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 보고자 칼럼을 신설한다. (편집자)

필 사람을 고용할 만큼의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두 아이가 유치원에 갈 만큼 클 때까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그 사이에 상당한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소유자인 남편은 경제권을 쥔 자신의 위력을 마음껏 과시했는데, 한 예로 그녀의 바깥 출입을 봉쇄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좀 더 자랄 때까지 고생스럽지만 집에 있어주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무 때고 바깥에서 내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자국히 독재적인 주문을 한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유일한 소일거리인 '글쓰기'를 금지시켰다. 정신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당연히 그녀는 그 주문에 저항했고 돌아오는 것은 반복되는 구타였다. 신체적인 폭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신을 병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그녀는 저항할 힘을 상실한 채 점점 자신 속으로 침몰해 갔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날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것도 그

녀의 출고 어두운 복복 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밝고 따뜻한 방을 얻어서. 두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이 끝나면 그녀의 방으로 와서 함께 지내다가 저녁 무렵 건너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했다. 혼자지내면서 그녀는 글을 쓴다고 했다. 처음에는 무척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자주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녀가 반란을 일으킬 힘을 얻었을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무력중에 빠져있던 그녀가 어떻게 전복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굳이 여성주의라는 이념적 간판을 걸지 않더라도 그녀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이 처한 상황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녀의 힘의 재결집의 비결은 어느 여성주의자의 난해한 이론보다 더 호소력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겸사)

가상 시나리오 '슈퍼맨의 비애'

입학한지 1주일 된 조은주양은 오후 6시로 약속된 2학년 선배들과의 상견례를 기대하며 집을 나섰다. 조은주양은 집근처 여자고등학교를 나와 비교적 수월하게 고3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그야말로 '왕 손자인' 새내기다.

새터에서 사귀 친구들과 겸의 들고 점심 먹느라 바쁘던 조은주양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다. 강의실 앞에서 만난 선배 하나가 특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너희들, 오늘 상견례때 소주 1병씩은 기본이야" 상긋 웃는 선배의 말이 그가 죽은 조은주양.

새터에서 처음 마셔본 소주는 지독하게 쓴 맛때문에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오후 6시, 선배 하나, 후배 하나 다정하게 자리를 잡아가 무섭게 술잔이 하나씩 둘러지고, 주도에 따라 술잔엔 정화회 8부의 맑은 술이 채워진다.

"자, 우리과의 전통에 따라 첫 잔은 모두 '왕'입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선배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어겁없이 술잔을 비운다. 옆에 앉은 선배와 잔을 부딪던 조은주양도 얼떨결에 완성 역시 쓰다.

이까 그 학생회장이 다시 일어나 노래 한곡을 자청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옆자리 선배는 노래 도중에 마시는 술, 이른바 '간주'라든가 또 잔을 부딪히라고 하고 조은주양은 씁쓸한 내색을 하면서도 분위기에 끌려가

고 이번엔 몇몇씩이 모여 게임판을 열었다. 마시고 죽자는 식의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시작합니다. 모두들 손가락 색을 준비를 하시고!". 결과는 5번, 이미 게임에 걸려 재산을 비운 조은주양이 또 떨어졌다.

주위에선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재미있어 죽었다는 표정이다. 벌써 속이 메스거리고 얼굴까지 빨개진 조은주양. "에라, 모르겠다." 어느새 비운 술이 한병을 넘어선 조은주양은 앞에 있는 술병이들로

보이다가는 셋으로 보이고, 심장은 쿵쿵 울려댄다.

완전 러브샷 하며 잔을 부딪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씩 물씩 집에 간다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얼얼조차 구별하기 힘든데. 커다랗게 떠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앞에 있는 술잔을 가득 채워서 '파도타기'로 정리하고 일어섭시다."

이건 또 무슨 주도? '일어서자'라는 한마디에 조은주양은 쓴맛도 체대로 느끼지 못한채 술을 털어 넣었다.

마지막 잔이 너무 과했는지 조은주양은 마침내 화장실 바닥에 이룬다. 무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등을 두들겨 주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채 조은주양은 주장을 해대다. "다들 상견례 때도 이런면 다시는 술자라 안을꺼요. 좋은 술 좋게 마셔야 하잖아요" (이유리 기자)



매아리 주도 15락

▲인류가 밀을 갈아 빵을 만들어 먹기전에, 쌀을 수확해 밥을 지어 먹기전에도 존재했던 인류 최고의 음식을 역사책에서는 술(酒)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과일 및 곡류의 발효물을 발효한 태초의 원인을 이래 술은 인류의 생활공간에서 빠질수 없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존재인 동시에 옛 성현들부터 요사이 풍파친 예비대학의 새내기까지 즐겨찾은 존재이기도 한다. 한 역사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곧 술의 역사라는 역설이 낯설지 않아 보인다. ▲술의 정신은 풍류에 닿아있다. 자연을 벗삼아 술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옛 어른들은 주도 15락이라 하여 술을 대하는 예절과 의의를 지키고자 했다. 이제 술을 배운다는 의미의 '학주'로 부터 죽음을 맞아 신선이 된 이후에도 술과 함께

하길 바했던 '열반주'까지 선인들의 술은 맛이 담긴 하나의 도로 존재했다. 때문에 조선조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친애의 하사품 중에 풍고에서 건넌은 증류수 '소주'가 끼여있기도 했다. 반면에 매일 주지욕임을 해매던 왕에게 신하가 '술이 적당하면 나라가 흥하고 과하면 망한다'는 진언을 올렸다는 중국고사도 찾아볼수 있다. ▲흥주라고도 불리웠던 막걸리를 민족의 화노애락과 함께 했다던 과장이 될까. 술은 또한 건강한 노동유에-찾는 근로대중의 벗이기도 했다. 대신 일하며 마시는 농주한사발이 오히려 되고 일의 능률도 높이지만 늘며 마시는 농주는 숙취만 남을뿐이라는 한 농부의 맑은 경험으로 알수있는 또 다른 술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 ▲새화기가 시작된다. 술이 말하는 책임과 분수를 망각한채 술이 사람을 마시는 음주로 오늘날 허우적될 많은 이들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술은 자신의 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할 술을 대하는 기본으로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과도한 음주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저기 북방 노사이사수장 원전선생처럼 세상사 '술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시적 자살'을 막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이다. (계)



서승현 (8)



일반휴학접수

'94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율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접수기간: '95. 3. 2(목)~3. 6(월)
2. 접수장소: 학적과
3. 대 상 자: '95년 2월말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4.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연서요)
5.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수 없다.
6.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치 않는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됨.

'95학년도 제1학기 특별시험

1. 시험과목: 3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공통필수	21101	국어강독 및 작문 I	2
공통필수	22103	영어 I	2
영역필수	41121	일반수학 I	3

2. 응시자격 및 과목
 - 가. 자격: '95학년도 신입생('95학년도 1학기 복학생 포함)
 - 나. 과목: 3과목 중 2과목까지
3. 시험일시: '95. 3. 4(토) 09:00~11:50
4. 과목별 고사시간: 추후 확정 공고함('95. 3. 3 교무과와 협의)
5. 고사장: C 204(본관 2층)
6. 전월료: 과목당 ₩30,000원
7.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5. 2. 28~3. 2(2일간)
 - 나. 장소: 교 무 과
8. 합격자 발표: '95. 3. 7(화)

교과목 추가개설 안내

'95학년도 제1학기 추가개설된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은 수강신청확인기간(3.8~3.10)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교양선택과목(인문과학분야)

학 연	이수	학수	과목명	학시	요일	비고
1	교인	12103	01	신과 인간	2 2	최정숙 월78 M408 주간강좌
1	교인	12104	01	명상과 자아	2 2	한태식 화12 M502 주간강좌
1	교인	12103	81	신과 인간	2 2	채택수 금45 G207 야간강좌
1	교인	12104	81	명상과 자아	2 2	이법산 월45 A101 야간강좌

전과실시 공고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실시함.

1. 모집학과 및 인원
 - 전자공학과(11명?), 컴퓨터공학과(12명), 전기공학과(8명), 기계공학과(6명), 화학공학과(7명), 산업공학과(11명), 야간반도체과학과(4명), 야간전산통계학과(5명)
 2. 모집학년: 2학년
 3. 지원자격
 - 가. '95학년도 3월2일 현재 분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 나.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 다. 1학년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4. 제출서류
 - 가. 전과원서 1매(소정양식)
 - 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다. 사진 3x4cm(반명함) 1장 [1개월이내 촬영한 것]
 - 라. 전월료 30,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5.3.6(월)~3.8(수) 17:00까지
 - 나.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6. 전형일시: '95.3.10(금) 14:00~
 7. 전형방법: 면접, 서류전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 할 것